Issue Comment

2025-01-03

로보틱스

Analyst 박찬솔 rightsearch@sks.co.kr / 3773-9955

SK증권 리서치센터

2025 년 로보틱스 투자가 본격화될 것이라는 신호

- 삼성전자, 레인보우로보틱스에 추가로 2,674억원 투입하면서 지분율 35.0%. 2대주주에서 최대주주로 올라서
- 이번 계기로 레인보우로보틱스가 국내 증시 로보틱스 대장주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
- 2025년 로보틱스가 확대될 가능성이 높은 핵심 전방 분야는 조선/방산(산업재)과 B2C 서비스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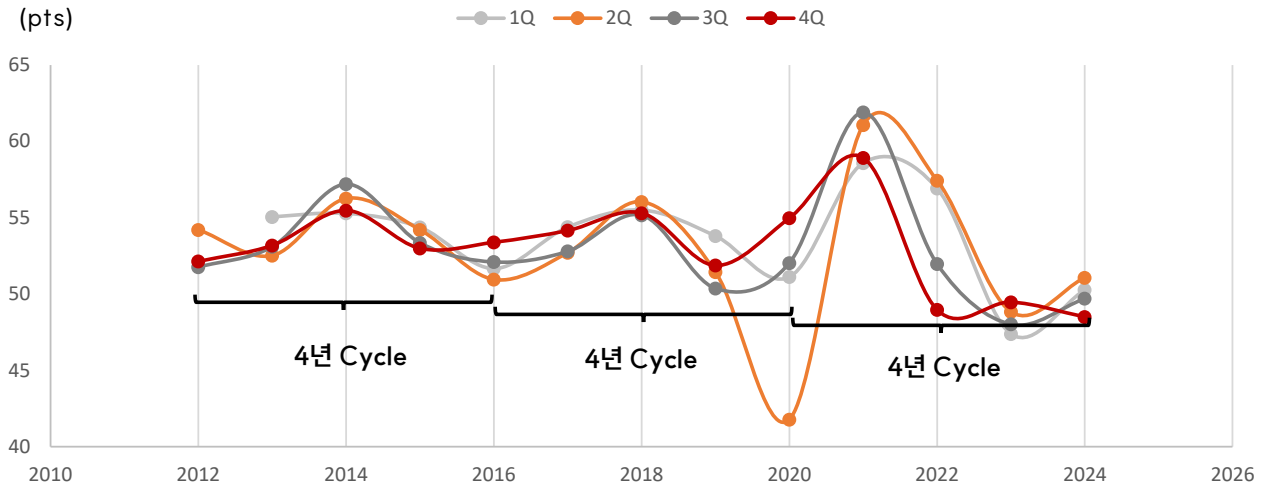
2024년 마지막날 레인보우로보틱스는 최대주주가 기존 오준호 등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서 삼성전자로 변경되었다고 공시했으며 삼성전자의 자회사로 편입 예정.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에 23년 1월 590억 원을 처음 투자하면서 지분 10.2%, 23년 3월 278억원 투자로 14.7%, 24년 12월 콜옵션 행사(추가 2,674억원 투입)로 35.0%까지 지분율 확대. 삼성전자는 레인보우로보틱스 6,789,950주(지분율 35%) 를 보유하게 되며, 콜옵션 물량 4,581,865까지 전량 행사를 가정 시 약 60%까지도 지분율이 확대될 가능 성도 있음.
삼성전자는 국내 최초 이족 보행 로봇 '휴보'를 개발한 레인보우로보틱스의 협동로봇/양팔로봇/자율이동로봇 성장 가능성에 주목. 또 삼성전자의 레인보우로보틱스의 최첨단 휴머노이드 개발 지원 예상. 삼성전자 DX 부 문 직속 미래로봇추진단을 신설하고 오준호 레인보우로보틱스 대표이사(지분 매각 후 지분율 7.8%)가 단장에 취임할 계획.

국내 로봇 산업이 대기업의 지원이 절실하다는 점에서 이번 지분 확대 및 최대주주 변경 건이 로보틱스 산업 의 사기를 높이는데 매우 긍정적. 국내 로봇산업에 투자해온 대표기업들은 한화/삼성/LG/LIG넥스원/현대/두 산 등. 이번 계기로 시장에서 기업들의 로봇기업 M&A나 추가 지분 투자에 관심이 높아질 것이라고 생각. 신성장 분야에서는 생태계가 동반 성장해야 된다는 점에 2025년이 업계의 중요한 투자 타이밍이 될 것.

2025년 로보틱스 적용의 확대가 예상되는 산업은 조선 + 방산(산업재 섹터). 조선의 경우 덴마크 Universal Robots, **레인보우로보틱스, 뉴로메카 등이 HD현대삼호 납품 이력이 있고 HD 조선 계열사가 협동 로봇 도입 확대 계획도 있는 것으로 파악**. 방산의 경우 **레인보우로보틱스, LIG넥스원의 고스트로보틱스, 에스비비테크 등이 방산업체에 납품 이력 있어**. 서비스 로봇 분야도 확대가 예상되는데, 비록 지금은 전체 로봇 산업 규모면에서 열위에 있지만, Tesla가 주도하는 서비스 산업 시장이 기존 전망보다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. 특히 2025년 자율주행 서비스 확대, 2026년 휴머노이드 로봇 출시로 시장이 형성될 것으로 기대. 국내 중소형주 중에서는 **로보티즈가 LG전자/LH/카카오 등과의 협 력으로 서비스 자율주행 로봇 분야가 고성장할 가능성 높다고 생각하며, 씨메스도 물류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음.**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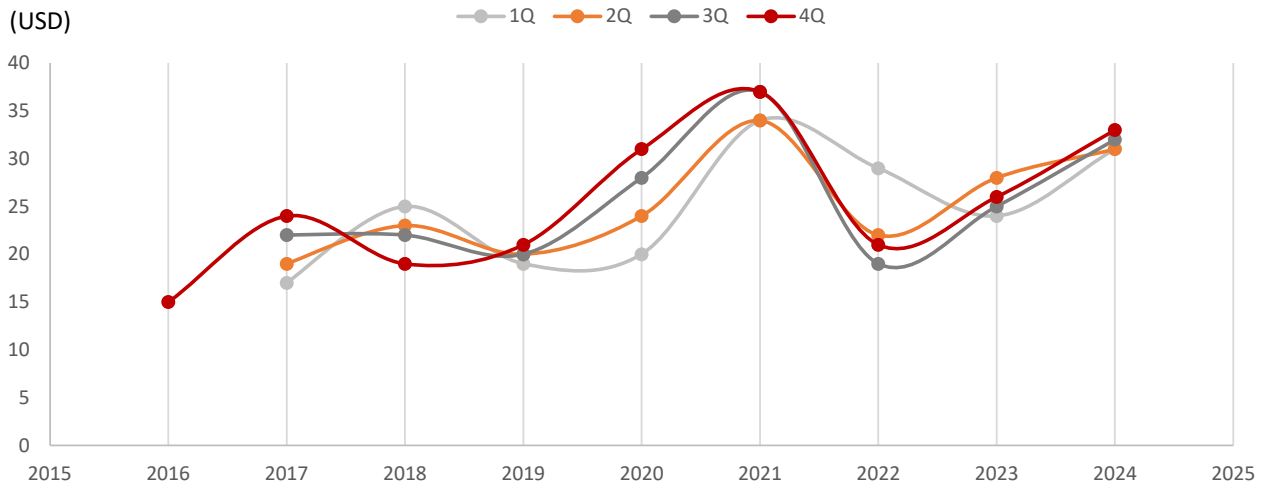
2025년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긍적적인 BIAS가 필요. 로보틱스 분야는 글로벌 주요 제조국들의 고령화 사회 진입으로 성장이 필연적임. 특히 글로벌 제조업 PMI가 미국 제조업 PMI와 궤를 같이 하고, 미국 제조업 PMI 는 미국 대통령 취임 첫해에 경기 확장으로 들어가는 패턴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만큼 국내 제조 대기업들의 로보틱스 산업에 대한 추가 투자가 나타날 가능성이 매우 높은 한해이기 때문.

미국 제조업 PMI 지표는 4년 사이클 – 미국 대통령 취임 첫번째 해(2025년)에 정책 불확실성 제거로 반등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



자료 : S&P Global, SK증권

Global X Robotics & Artificial Intelligence ETF 분기별 평균 가격(달러)



자료 : Bloomberg, SK증권

Compliance Notice

- 작성자는 본 조사분석자료에 게재된 내용들이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,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신의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.
- 본 보고서에 언급된 종목의 경우 당사 조사분석담당자는 본인의 담당종목을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.
- 본 보고서는 기관투자가 또는 제 3 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.
- 투자판단 3 단계 (6 개월 기준) 15%이상 → 매수 / -15%~15% → 중립 / -15%미만 → 매도